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1994년 10여 년의 외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알게 된 사실 중 그것이 가장 반갑고 감사했다. 기학연이 한 일들 가운데 그것이 가장 큰 일 것이다. 몇 분 멘토의 지도를 받은 학부 학생들의 스터디 그룹이 한국교계의 중요한 한 운동 또는 사상적 흐름을 일구어 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기학연이나 기대설 같은 학자와 학생 동호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취미활동이 아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경제, 의료, 문화, 언론과 심지어는 정치에도 기독교 세계관의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 학문과 교육에서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기독교 세계관은 학문과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 폭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와 문화 전 영역에 걸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도 인식되어 있다. 현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 안목을 갖도록 도와 주는 안경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성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פות이나마 알고 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과연 기독교 세계관은 알려진 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원론적 답은 유보하고, 지금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스스로의 주장이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에 이런 능력을 보여준 사례들을 외국의 예에서 찾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외국의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간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수년 전 주로 30대 기독교 지성인들 사이에서 그간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 논의를 염두에 두고 이제껏 해온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본질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던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는 운동의 실천이 미흡한 때문일 수 있다. 나는 이 두 문제를 모두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첫째보다는 둘째 이유, 특히 운동의 실천이 미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그간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헌신한 이들이 모임을 가지는 것은 이런 현실에 대해 함께 씩씩하고 나아가 새로운 방향의 모색과 제시를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생각해본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그렇게 시작했듯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함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책”은 저자를 우리들의 모임에 초대하는 효과가 있다. 또 저자가 제시하는 주제와 통찰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논의가 집약될 수 있어 도움을 준다. 오늘날뿐 아니라 앞으로도 외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관련된 책들을 검토하여 자칫 시의성을 잃고 구태의연해질 수 있는 우리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향상(upgrade)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지난 20여 년간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훌륭히 목회를 해온 티모티 켈러이다. 그가 제시하는 통찰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읽는 독특한 안목에서 비롯한다. 그의 주제는 “전통적이면서 복음적인 변증”이다. 나는 세 가지 점에 모두 매력을 느낀다. 첫째, 그가 훌륭한 목회자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현실과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 책이 전통적인 변증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켈러는 여러 곳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가 아는 기독교 세계관 교재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목회적인 방식으로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 기독교 세계관을 학과목이나 “상업적” 브랜드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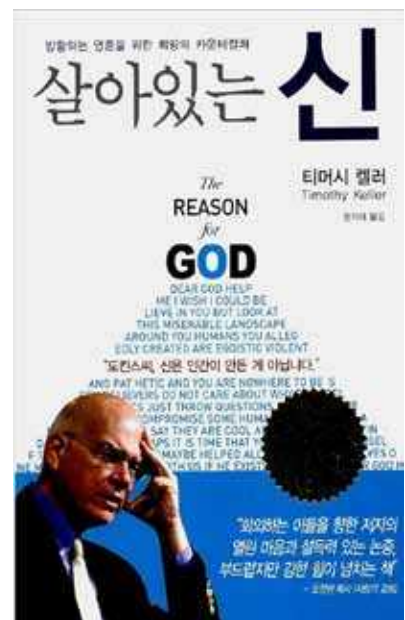
금번에 『방황하는 영혼을 위한 희망의 카운터 켈쳐, 살아있는 신』으로 번역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회의로 가득한 시대의 신앙, 하나님을 믿을 이유”이다. 전체 구성은 1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정적 의심에 대한 반론, 2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다. 1부가 소극적인 변증이라면 2부는 적극적 설득이다. 1부에서는 다원주의, 고통과 악, 기독교의 억압적이며 불의한 면, 지옥, 과학에 맞지 않음, 그리고 성경을 믿기 어려움 등 목회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불신자 또는 회의적 신앙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논의들을 통해서 켈러는 불신앙적 도전을 극

복하려 한다. 2부에서는 신의 존재와 그를 앎, 죄, 복음, 십자가, 부활, 춤추는 신 등의 기독교 핵심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려 한다.

아마도 여기 모인 이들에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목만 보아도 능히 짐작할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살피는 것보다는 그가 이 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또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가 더 관심이 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내용보다는 스타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의 방식에서 오늘과 같은 특히 뉴욕과 같이 현대 문화의 첨단에 있는 삶의 장에서 20년간 복음 전파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그런 점을 인상 깊게 느꼈다. 이 책은 학문적인 책은 아니지만 정말 감탄할 정도로 많은 인용과 독서에 기초해 있다. 다음의 내용이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이다.

첫째, 켈러의 논의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그가 이 책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주제에 관한 책들은 많다.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씨 에스 루이스를 비롯해서 수 많은 이들이 다루었던 내용이다. 따라서 자칫 진부하게 생각될 수 있는 주제들이다. 하지만 시의성을 높인다고 “재치 있게” 다루기엔 너무도 중요하고 무거운 것들이다. 내가 최근에 대했던 국내의 저자들이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켈러는 이 두 문제를 잘 넘어서는 점에서 훌륭하다. 그 방법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켈러는 기독교 고전을 두루 읽어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유산을 자신이 다루고 있는 상황과 현실 문제에 시의적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제고하는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의 논의는 가볍지 않으나 결코 진부하거나 질질 끌리지 않는다.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고답적이라는 비판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시의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신선하지 않고 실천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가? 그 위에 켈러가 보여준 목회적 자세를 어떻게 갖추 수 있을까?

둘째, 켈러가 언급하며 논하는 내용이나 책들이 기독교 저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책들과 내용이 아주 전문적인 것도 적지 않다. 체스스턴, 톨킨, 알리스터 맥그라스, 뉴비긴, 스토티, 피터 버거, 스테판 카터, 도로시 세이어즈, 스윈번, 로버트 벨라, 업다이크, 플래너리 오코너, 테리 이글턴, 본 험퍼, 라인홀드 니버, 톰 라이트, 리처드 로티, 미셸 푸코, 리처드 도킨스, 스탠리 피시, 워르겐 허버마스, 자끄 데리다, 존 힉 알라스테이어 맥킨타이어 등 수많은 철학자, 소설가, 영화감독, 과학자가 논의 곳곳에 등장한다. 아마도 그가 직접 간접적으로 목회하는 이들이 이런 작가들과 그들이 만들고 유포하는 세계관을 잘 알



고 있기에 목회자로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 계속 공부를 하며 이 작가들의 어려운 책들을 읽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늘의 목회는 바르트의 말처럼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인상적인 것은 켈러가 이런 작가들의 이름이나 거명하고 그들의 논의를 피상적으로 그냥 아는 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용을 전문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기독교 지성인과 특히 세계관 논의를 이끄는 이들은 반드시 오늘의 문화 사회적 이슈들을 꿰뚫고 있어야 시대적 소명과 목회적 의무를 바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셋째, 켈러의 목회적 통찰은 바로 그런 해박한 현실 문화와 사회 이해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켈러가 지금은 신앙과 불신앙이 함께 강해지고 있는 특이한 시대라는 점을 그 가운데 신앙에 관심을 가진 특별한 계층이 있음을 파악하고 그들에 필요한 목회를 설계하는 통찰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 책에서 본문만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말” 과 “에필로그” 이다. 나는 그의 목회적 통찰에서 한국 사회에도 바로 이런 부분에 갈급하고, 또 그의 말처럼 그러한 깊은 신앙적 관심을 통해 명목상 신앙이나 이념적, 문화적 갈등 또는 차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문화전쟁” 을 넘어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았다.

넷째, 켈러는 분명히 오늘날 미국의 책임 있는 지도적인 목회자에게서 요구되고 기대되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사실이 큰 도전이 되었다. 켈러는 소위 『목적 이끄는 삶』 과 같은 베스트셀러를 내는 리 워런과는 다른 류의 목회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의 목회자 가운데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학자들 중에는 어떠한가?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이런 책이 벌써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도 반성해보았다. 나오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은 딱히 기독교 출판사라고 할 수 없는 베기북스라는 곳에서 출판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도 이 책이 번역되었으면 좋겠다고 몇 사람에게 이야기하던 차에 번역본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2008년 2월에 책이 나왔으니 2년 만에 번역판이 나온 것이다. 번역을 살펴보니 곳곳에서 번역자가 전문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며 심지어는 개신교인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눈에 띈다. 과거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핵심적 도서를 모아서 읽고 공부하며 번역하여 소개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돌이켜 볼 때, 지금 우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글. 유경상 CTC대표